

레미콘 산업동향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조사과)

1. 1999년 상반기 건설경제동향

한국은행이 발표한 '99년 2/4분기 국내총생산(잠정)에 따르면, '99년 2/4분기중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도 증가세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며 농림어업과 광업도 그동안의 감소에서 증가로 반전되어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GDP)는 전년 동기대비 9.8% 증가하였다.

한편 건설업은 7.9% 감소하여 전 분기(14.7% 감소)에 비하여 감소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 그 동안의 극심한 침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민간

건설은 토목건설이 고속도로, 고속철도, 전력 시설 건설 등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났으나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건설이 계속 부진하여 전체로는 18.9% 감소하였다. 그러나 정부건설은 부산 아시아게임 및 월드컵 시설 등 도시토목과 상하수도 및 공항건설들이 늘어나 16.4% 증가하였다.

2/4분기중 건설투자는 총 18조8,74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주거·비주거용 건설투자가 전년 건축허가 감소(-55%) 효과가 지속되면서 감소세가 계속되어 주거용이 17.4%, 비주거용이 46.6% 감소하였으며, 토목건설투자는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준비 등 도시토목과 공항, 철도 상하수도 건설 등이 활발하여 16.6% 증

[표 1] 건설업 성장률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분	기간	'98년				'99년		
		1/4	2/4	3/4	4/4	년간	1/4	2/4
건설업		-3.9	-6.6	-10.1	-13.3	-9.0	-14.7	-7.9
민 건 건 설	합 계	-3.2	-11.7	-13.3	-15.1	-11.2	-23.7	-18.9
	주거용	2.0	-5.1	-5.2	-16.2	-6.3	-23.4	-19.4
	비주거용	-3.6	-21.3	-36.1	-45.9	-25.3	-45.6	-56.4
	토 목	-14.8	-12.7	-2.8	6.8	-3.3	25.0	16.4
정부건설		-7.4	6.9	-1.9	-10.0	-3.3	31.2	16.4

자료 : 한국은행 '1999년도 2/4분기 국내총생산(잠정) 참조

(표 2) 건설투자 성장률 추이

(단위 : 10억원, 95년 기준, 전년동기대비 %)

구 분	건설투자		주 거 용		비주거용		토 목 용	
	금 액	증감율	금 액	증감율	금 액	증감율	금 액	증감율
98년	80,148	-10.2	24,629	-7.6	17,762	-21.2	37,757	-5.8
1/4	16,482	-5.9	6,312	0.6	5,358	-4.6	4,812	-14.4
2/4	20,626	-7.8	6,484	-6.8	4,707	-16.7	9,435	-3.3
3/4	20,211	-12.0	6,177	-6.4	4,130	-29.3	9,904	-5.7
4/4	22,829	-13.7	5,656	-17.2	3,567	-34.4	13,606	-4.1
99년 상반기	33,099	-10.8	10,254	-19.9	5,702	-43.4	17,144	20.3
1/4	14,225	-13.7	4,896	-22.4	3,187	-40.5	6,142	27.6
2/4	18,875	-8.5	5,358	-17.4	2,515	-46.6	11,002	16.6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99년 상반기 건축허가동향에 의하면 '99년 상반기중 전국의 건축허가면적은 주거용, 상업용 건축허가면적의 부진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30,539천㎡에 비해 17.0% 감소한 25,357천㎡가 허가되었다.

용도별로 주거용이 13,942천㎡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8,947천㎡보다 26.4% 감소하였으며 상업용도 4,737천㎡로 전년 5,811천㎡보다 18.5% 줄어들었다. 반면 공업용 건축허가면적은 전반적인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제

조업의 공장신축이 증가하면서 전년 1,425천㎡보다 96.5% 증가한 2,800천㎡가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7월중 건축허가 면적도 전년 3,386천㎡대비 49.0% 증가한 5,046천㎡로 4월 이후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동안 부진을 보였던 주거용과 상업용의 건축허가면적도 점차 증가추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반기중 국내건설수주액은 20,740억원으로 전년대비 10.9% 감소한 것으로 나타

(표 3) 99년 상반기 용도별 건축허가면적

(단 위 : 천㎡, %)

구 분	상반기			7월			1~7월		
	'99	'98	증감율	'99	'98	증감율	'99	'98	증감율
전 체	25,357	30,539	-17.0	5,046	3,386	49.0	30,403	33,925	-10.4
주거용	13,942	18,947	-26.4	2,741	1,963	39.6	16,683	20,910	-20.2
상업용	4,737	5,811	-18.5	924	406	127.6	5,661	6,217	-8.9
공업용	2,800	1,425	96.5	732	213	243.7	3,532	1,638	115.6
기 타	3,878	4,356	-11.0	650	805	19.3	4,528	5,161	-12.3

[표 4] 99년 상반기 국내건설 수주액

(단위 : 10억원, %)

구 분	1/4 분기		2/4분기		상반기		
	수 주 액	전년동기비	수 주 액	전년동기비	수 주 액	전년동기비	
계	7,606	-39.6	13,133	25.0	20,740	-10.9	
발주자별	공공	3,737	-44.7	5,683	-7.9	9,419	-26.5
	민간	3,870	-33.7	7,450	71.8	11,321	7.9
공종별	건축	4,053	-27.5	7,701	38.7	11,754	4.5
	토목	3,553	-49.2	5,432	9.7	8,986	-25.4

자료 : 통계청 및 건설협회 자료임

났다. 이는 민간부문의 경우 공장 창고, 사무실 등에 대한 발주 호조로 감소폭이 크게 줄었으나 토목공사를 중심으로 한 공공공사가 부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은 실적은 '97년 같은 기간의 52%에 불과한 것이며, 특

히 공공부문의 경우 공공공사가 상반기 대량으로 조기발주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중 신규공사 물량이 부족하여 위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표 5] 99 상반기 유형별 주택 건설 실적
(단위 : 호, %)

구 분	'98.1~6월	'99.1~6월	대 비
공공부문	60,165	49,721	-17.4
민간부문	105,977	77,773	-26.6
합 계	166,142	127,494	-23.3

자료 : 건설교통부

금년 상반기 주택건설실적을 살펴보면 상반기중 건설된 주택은 총 127,494호로서 전년 동기의 166,142호 보다 23.3%감소하였다. 이 중 공공부문은 49,721호로서 지난해 60,165호보다 17.4%, 민간부문은 77,773호로서 지난해 105,977호보다 26.6% 감소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68,627호가 건설되어 지난해보다 22.7% 감소하였고, 지방은 58,867호로서 23.9% 줄어들었다.

[표 6] 시·도별 주택건설실적
(단위 : 호, %)

구 분	'98.1~6월	'99.1~6월	증감율
계	166,142	127,494	-23.3
수도권	88,773	68,627	-22.7
서울	15,676	20,434	30.4
인천	6,715	440	-93.4
경기	66,382	47,753	-28.1
광역시	23,226	12,706	-45.3
기타	54,143	46,161	-14.7

상반기 주택건설추세를 보면 2월 이후 감소율이 점차 작아지고 있고 수도권과 지방의 감소율 격차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1999년 상반기 레미콘산업 동향

상반기중 레미콘 산업은 전년에 이어 레미콘 수요의 감소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571개업

[표 7] 전국 레미콘 생산업체 현황

(1999년 6월30일 현재)

구분 지역	업체수	공장수	배치플랜트			레미콘 믹서트럭 보유대수	시멘트 사이로 (Ton)
			기 수	생산능력(B/P)			
				m ³ /hr	천m ³ /년		
서울·경인	108	157	266	49,740	99,480	7,339	170,170
강 원	75	83	90	12,390	24,780	1,208	41,810
충 북	44	45	54	7,860	15,720	906	25,900
대전·충남	71	93	123	19,644	39,288	2,110	81,850
전 북	50	55	71	11,450	22,900	1,201	41,040
광주·전남	64	77	96	15,480	30,960	1,970	53,310
대구·경북	90	102	135	21,204	42,408	2,360	99,490
부산·경남	94	106	148	24,170	48,340	3,180	109,790
제주	15	15	19	2,880	5,760	309	9,930
전국 총계	571	733	1,002	164,818	329,636	20,583	633,290

- 주) 1. 전국 업체수는 지역 중복을 피한 수치임.
- 2. 연간 생산능력은 년 250일, 1일 8시간 가동 기준임.
- 3. 시멘트사이로는 각 레미콘공장 보유 시멘트사이로의 합계 임.

체 733개공장에서 총 44,221,183m³를 출하하여 전년 같은 기간의 46,379,266m³대비 4.65%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8년 경제위기로 투자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어 신규로 착공되는 공사가 급감하면서 올해초 이월된 공사가 크게 줄어 1/4분기중 레미콘출하는 전년 대비 약 20%에 가까운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4월중 '97년 이후 처음으로 레미콘출하가 증가세로 반전하기 시작하여 2/4분기에는 전년 28,069,504m³대비 4.37% 증가한 29,297,898m³를 출하하면서 '98년 이후 보인 급격한 감소추세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이 4월 이후에야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고 건축허가 이후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레미콘이 투입된다는 점을 본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건설경기의 회복으로부터 나온 결과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올 2/4분기중 레미콘출하의

증가는 '98년 2/4분기중 이월공사물량의 소진과 신규 착공공사의 격감으로 인한 레미콘 출하의 급격한 감소('97년 대비 27.8% 감소)로 인한 기술적 반동의 효과가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수요별로 민수용 레미콘의 감소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수는 1-5월까지 감소세를 유지하였으나 6월 7,248,293m³를 출하하여 전년 6,245,114m³ 대비 16.06% 증가하면서 증가세로 반전하였다. 레미콘 출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수의 증가는 레미콘 산업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거나 향후 민간건설경기의 회복이 지연될 경우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전년 도로, 교량, 항만 등 SOC시설을 비롯하여 환경관련 시설 등의 공사가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전체 레미콘산업 경기를 주도하였던 관수는 공공부문의 조기발주에 의한 효과가 레미콘산업에 그다지 크게 작용

[표 8] '99년 상반기 지역별 레미콘 출하 실적

(단위 : m³, %)

지 역	수 요 별	'99. 상반기	'98. 상반기	증감율	점유율
서울·경인	민 수	14,700,158	15,704,405	-6.39	39.7
	관 수	2,867,808	2,928,249	-2.06	
	계	17,567,966	18,632,654	-5.71	
강 원	민 수	1,370,101	1,587,954	-13.72	4.8
	관 수	743,774	725,429	2.53	
	계	2,113,875	2,313,383	-8.62	
충 북	민 수	1,269,580	1,487,692	-14.66	4.3
	관 수	614,948	517,759	18.77	
	계	1,884,528	2,005,451	-6.03	
대전·충남	민 수	3,028,760	3,523,522	-14.04	9.5
	관 수	1,168,124	1,062,926	9.90	
	계	4,196,884	4,586,448	-8.49	
전 북	민 수	1,566,903	1,674,624	-6.43	5.3
	관 수	759,412	811,354	-6.40	
	계	2,326,315	2,485,978	-6.42	
광주·전남	민 수	2,567,165	2,975,743	-13.73	8.8
	관 수	1,321,650	1,459,115	-9.42	
	계	3,888,815	4,434,858	-12.31	
대구·경북	민 수	3,339,076	3,164,718	5.51	12.2
	관 수	1,989,872	1,607,152	23.81	
	계	5,328,948	4,771,870	11.67	
부산·경남	민 수	4,433,536	4,672,476	-5.11	14.3
	관 수	1,889,269	1,851,668	2.03	
	계	6,322,805	6,524,144	-3.09	
제 주	민 수	324,483	357,703	-9.29	1.3
	관 수	266,564	266,777	-0.08	
	계	591,047	624,480	-5.35	
합 계	민 수	32,599,762	35,148,837	-7.25	100.0
	관 수	11,621,421	11,230,429	3.48	
	계	44,221,183	46,379,266	-4.65	

하지 않음에 따라 상반기중 11,621,421m³를 출하하여 전년 11,230,429m³대비 3.48% 증가에 그치고 말았다. 특히 공공공사의 발주가 상반기에 집중됨에 따라 하반기에 관수출하의 위축세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역별로 대구·경북지역은 전년 동기 4,771,870m³ 대비 11.67% 증가한 5,328,948 m³를 출하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레미콘 출하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년 다른 지역보다 출하 감소폭이 컸던 상대적인 영향과 전년 하반기

기 이후 상주와 경주지역에 수해복구공사가 대규모로 발주되어 올해 상반기로 이월되었고 '99년에도 공공공사가 대부분 상반기에 발주됨에 따라 관수의 증가폭(전년대비 23.81% 증가)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서울·경인지역이 전년 18,632,654 m³대비 5.71% 감소한 17,567,966m³를 출하하였고 부산·경남지역이 전년대비 3.09% 감소한 6,322,805m³를 출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기전반에 걸쳐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건설경기지표가 공공부

문 사업예산의 조기집행 및 대규모 주택의 집중발주, 상업용·공업용 건축 허가면적의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시책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건설경기도 점차 회복국면을 보이며 건설경기가 전년의 침체를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건설경기의 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향후 레미콘산업은 일단 급격한 출하 감소세에서 어느 정도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